

SHE WAS BORN WITHOUT ARMS,
BUT SHE OVERCAME HER DISABILITY

실러의 꿈과 희망을 키워준 태권도 'Take a Breath and Move Forward:' Sheila Radziewicz

두 팔 없이 태어났다. 하지만 장애를 이겨냈다. 그녀는 태권도 유단자가 되었다.

미국인 여성 실러 래지위츠(34) 씨는 세계 청소년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2012년 7월 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제4회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에 래지위츠 씨가 특별 강사로 초청됐다. 캠프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통해 인생의 새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녀의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만큼 그녀는 예쁘다. 불굴의 의지가 그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든다. 존경할 만하다. 그녀가 태권도를 만났기에 그게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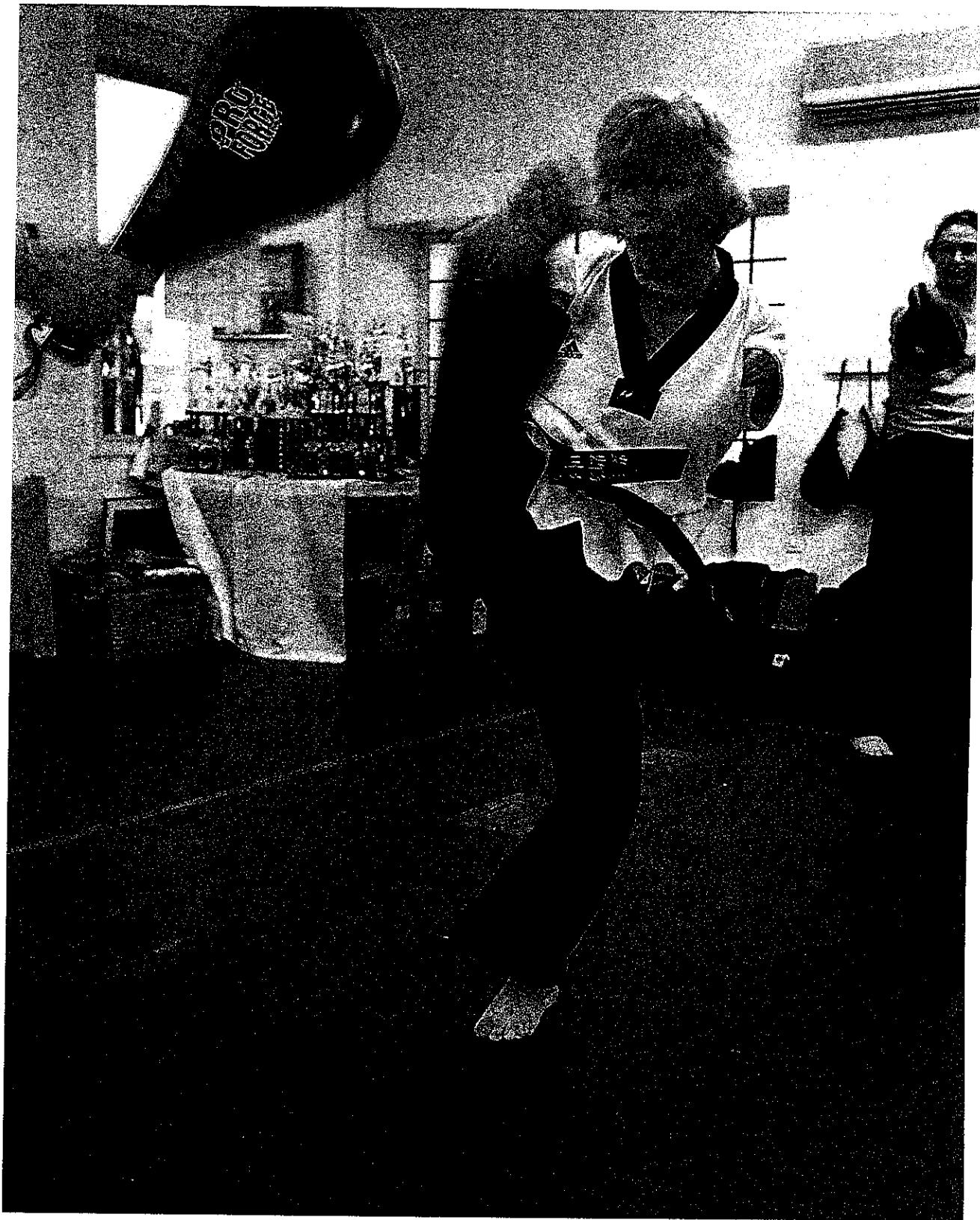
실러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산다. 그녀는 선천성 혈소판감소증으로 양팔이 없이 태어났다. 2001년 노던 애리조나대 대학원에 다닐 때 태권도 교실을 소개하는 광고전단을 우연히 보고 도장을 찾은 것이 태권도와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다.

"Hana! (One!) Dul! (Two!) Set! (Three!)" Children and adults react to the commands of the taekwondo coach as she puts them through their paces in the small town of Peabody, near Boston, United States. But this is no ordinary coach: Look again and you will see she has no arms.

Meet Sheila Radziewicz.

Radziewicz, 34, lives in Massachusetts, U.S.A. She was born without arms and knee cartilage. These are unquestionably serious problems, but her parents raised her to be a strong, independent woman, and she has tried to live a life that was not dependent on anybody.

It was when she was a graduate student at Northern Arizona University in 2001 that she came across a brochure in a cafeteria. The brochure introduced a local taekwondo academy. Intrigued, she called and asked whether she could practice the sport without arms and being unable to walk normally.



SHE LEARNED TAEKWONDO IN ORDER TO OVERCOME HER DISABILITY



쉴러는 어느 날 우연히 카페테리아에 갔다가, '태권도 도장'에 관한 전단지 발견했다. 전화를 걸어, 혹시 내가 태권도를 할 수 있느냐고 다짜고짜 물어봤다고 한다. 나는 양팔이 없고, 제대로 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 전화를 받은 도장 관계자는 그녀의 전화를 거짓말, 장난전화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쉴러가 도장을 찾았고, 겨우 두 발로 설 수 있었던 그녀는 오직 '발차기'에 집중하면서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균형감각도 생기고... 그렇게 태권도를 한지 10여년이 흘렀고, 검은 띠를 따는 데 꼬박 6년이 걸렸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태권도를 배운 쉴러. 그녀의 부모는 더욱더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애썼고, 쉴러는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당당히 검은 띠를 따고, 태권 사범이 된 쉴러는 보스톤 인근의 작은도시 '피바디'에서 자신의 스승 밑에서 태권도 교육을 한다. 어린 아이들은 쉴러의 한국어 구령에 맞춰 동작을 하고, 성인들도 그녀의 수업을 듣고, 또 수업도 함께한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쉴러. 그녀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자신의 장애 극복 경험과, 인생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양 팔 뿐만 아니라, 무릎의 연골도 없이 태어난 쉴러는 그렇게 태권도를 통해 다리의 균형 감각도 찾고 건강한 마음까지 얻었다.

태권도 역사상 오직 발차기만으로 검은 띠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 된 쉴러 래즈워츠의 감동적인 삶은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교훈과 충격적인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가르침은 온통 동감이다. 오로지 그녀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낸다. 그래서 태권도는 물

The person who received her call thought it was a prank. However, when she visited the school and took her first lesson in taekwondo, it became very clear it was not. Radziewicz's disability forced her to focus exclusively on the art's specialty: kicking. With time, she gained improvements in the use of the muscles on her legs and found a new sense of balance.

Ten years has passed since the day she first took up taekwondo.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she gained the coveted black belt; she is believed to be the first woman in the history of the "Way of Hand and Foot" to earn the grade solely by kicking. Now, Radziewicz has a new dream: To tell young people how she overcame her disabilities and how she lives a full life despite her handicaps.

And this is what she is doing. Her moving life story, which was made into a documentary, touched not only the hearts of Americans, but the hear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particularly tho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parents. Recently, she was invited as a special lecturer for the 4th World Youth Taekwondo Camp to be held in July 2012 in Korea. The young camp participants will use her counsel to find their own goals through taekwondo.

Radziewicz's lesson is entirely convincing: She did it all by herself. That is how she learned both taekwondo and the beauty of life.

론 인생의 정엄함을 배울 수 있다. 그 감동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의 마음에 태권도의 사랑을 전한다.

배종신 국기원 재단 이사장은 2013년 전북 무주에 문을 여는 태권도공원에 장애인 연수 프로그램 도입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 프로그램에 래지위츠 씨가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태권도는 이제 장애인에게 더 없는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하고 태권도를 통한 송고한 인생드라마를 만드는 것이다. 그 드라마 주인공 중의 주인공이 쉐라 래지위츠다.

쉐라 래지위츠는 배종신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의 부탁을 받았다. 그녀는 흔쾌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참여하기로 했다.

쉐라가 청소년 태권도 수련생들을 위한 메시지를 남겼다.

"어머니가 항상 제게 말씀하셨듯 불가능은 잠시일 뿐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있다. 중요한 것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태권도는 쉐라의 꿈과 희망을 싹게 했고, 그 속에 살게 하고 있다.



"As my mom always told me, impossible is nothing but a moment," she said in a message to camp participants. "As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to, it is important to believe in yourself. We all have our own hard times. What is important is to take a breath for a moment and move forward."

Bae Jhong-shin, chairman of the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explained to her his plan to introduce a training program for the disabled at the Taekwondowon which will be opened in Muju, Jeollabuk-do Province, Korea in 2013. He discussed with her the ways she could participate in the program. In the spirit of the Paralympics, taekwondo is now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learn it.

With diligent practice, anyone can create their own drama through taekwondo. Sheila Radziewicz is a star actress in these dramas.